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의3  
골든오비스텔 4층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刊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 (02)783-0071-2 F: (02)783-0073



"사랑과 추억을 꽃 피우는 우정의 댄스파티". 미국 등 해외지역동창회 동문·가족들은 신년회나 설날, 송년회 등을 통해 단합회를 열고 화합과 결속을 다진다. 사진은 뉴욕지역동창회 98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에서 동문·가족들이 경쾌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 워싱턴 부부가요제

설날맞이 한마당... 그랑프리 김갑수(5회) 수상  
행운대상 쌀 한가마 "고향 물씬"



미국 워싱턴지역 동창회 동문·가족들이 설날잔치를 벌여 '고향의 맛'을 만끽하고 행운대상으로 쌀 한가마 등 장해 추억의 심금을 울렸다. 워싱턴지역동창회는 2월 20일 저녁 김동석동문(5회) 자택에서 99년 임시총회 겸 설날맞이 노래잔치를 부부

여명이 출연, 열창의 파노라마를 이뤘다. 처음에는 몇몇 부인들이 부끄럽다며 사양했으나 집행부에서 "노래하지 않으면 별급으로 '1백달러 기부금'을 내야한다"는 엄포를 놓는 바람에 모두들 놀라 1백% 출연하는 촌극(?)을 빚었고, 그 바람에 동문 부인들의 노래 솜씨를 빠짐없이 알게 된 기록을 남겼다. 노래자랑은 기성가수 초대무대 이상이었다. 김형석 김동석동문(이상 5회)의 부인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 영예의 대상은 매혹의 성량으로 '신라의 달밤'을 열창한 김갑수동문(5회)이 차지했다. 또 최우수상은 성광수(15회), 우수상은 김광수(20회), 인기상은 맨 먼저 용감하게 자진해 무대에 오른 김기공동문(22회)이 안았다. 이어 진행된 행운상 추첨에서 대상은 홍영석동문(12회)이 차지, 쌀 한가마를 부상으로 받았다. 또 여러 동문들이 다양한 기념품을 받고 즐거워했다. '고향의 맛'을 한껏 느낀 이날 잔치는 볼륨댄스의 대가 김동석동문 부부의 열정스런 탱고춤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임시총회... 기금조성 결의  
정성기쁜 푸짐한 잔치상  
구경명(18회) 스폰서  
볼륨댄스 대가 김동석부부  
탱고춤 피날레 장식

동반으로 벌였다. 푸짐한 잔치상은 식당 '삼우정'을 경영하는 구경명동문(18회)이 서비스했다. 안준철회장(17회·사진)이 주재한 임시총회는 주요의안으로 △회칙 제정안 △워싱턴·버지니아·메릴랜드주 동창회 기금 조성안 등을 의결했다. 이어 박경배총무(29회)의 사회로 막이 오른 부부노래자랑 대회에는 20

## 환경운동·봉사활동 동참 제28회, 지역사회발전 기여

제28회동기회는 동창회사상 최초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기존의 NGO(환경운동) 활동에 연대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직능별 전문분야 동문 중심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조직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해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동기회는 4월 27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본부회관 14층 '골든뷰페'에서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총회는 이어 지난 달 이사회에서

**동창회 사상 최초  
기전·바다 청소 나서  
자연보호 등산대회  
서영대회장 앞장**

내정한 서영대동문(한마음신경정신과 부원장)을 신입회장으로 추인하

고 이 사업의 세부계획 추진을 위임했다. 김만중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4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을 개선한 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밤 11시까지 진행된 총회는 동기회 활성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의견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모색 등으로 시종 뜨거운 분위기였다. 총회는 이날 △동기회는 밖으로 눈을 돌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기존의 환경운동단체와 연대해 NGO활동에 참여한다 △동문·가족들은 집행부가 세부계획을 준비할 때까지 환경단체가 실시하는 하천 및 바다 청소에 먼저 참여한다 △직능별 전문분야 동문 중심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등을 결의했다. 한편 서영대회장은 첫 사업이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초전으로 5월 9일(일) 대청공원에서 꽃동네까지 가족동반 등산대회를 산우회 주관으로 열고 자연보호 및 등산로 대청소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4월 27일 오후 골든뷰페에서 열린 제28회동기회 정기총회 광경.

## 5월 30일 기벌테니스대회

본부주최, 신평 레포츠공원 테니스장서

본부동창회 주최 제24회 기벌대항 용마테니스대회가 5월 30일 부산 사하구 신평 레포츠공원 테니스장(신평지하철역 건너편)에서 용마테니스회 주관으로 열린다. 단체전 3복식제(예선리그 경우 총득실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제1~17회까지 연합팀, 제18회부터 단일팀으로 출전, 왕중왕을 뽑는다. 이항우용마테니스회장(18회)은

"모든 경기는 대한테니스협회 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모두 1세트제이며 스코어가 6-6 경우 타이 브레이크 시스템(Tie Break System)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회 규칙에 따르면 예선은 조별리그 후 1, 2위 팀이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고 결선은 크로스 토너먼트로 치른다. 오더순에 따라 1인이 중복 출전할 수 없다.

예선조 편성은 주최측에서 정하고 예선성적 우선 순위는 승률·승자승·선배기 순으로 한다. 출전금은 팀당 10만원이며(추가는 팀당 5만) 시상식 직후 행운상 추첨과 함께 흥겨운 뒤풀이를 갖는다. \* 문의: (051)704-0754 회장 이항우, (051)264-2581-FAX (051)264-2580 총무 김상현.

## 용마골프대회 17일 "클린 샷" 돌입

아스파라긴, 울리고당, 벌꿀 함유

CLEAN 1

깨끗한 소주 시원소주

21회 최민석

깨끗한 소주

시원소주



시 평

강진평

제10회 본부동창회 감사·부장산업 대표



삶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공자나 석가모니, 예수 등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근본이치를 깨우쳐 주었고 우리들의 행동규범과 계율을 창시해 주었다. 이들 성인들은 누가 가르쳐서, 누가 인도해서도 아닌 스스로 깨닫고 느껴 진리와 법도를 펴낸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인물이나 위인들을 찬양하기도 한다. 이들은 스스로 학문을 갈고 닦으면서 우매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고 인류공영에도 기여를 했다.

선대의 현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명언도 많다. 인무원여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라는 논어의 한 귀절과 같이 사람이 멀리 생각함이 없으면 가까이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우리도 세종대왕이나 이퇴계, 이율곡선생 등 선각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분들을 추앙하고 사모하면서 그 학덕과 업적들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세상을 두고 '스피드시대' '변화의 시대' '주의의 시대'라고 한다. 이 얼마나 바쁜 일정에서 불안과 초조감을 안고 살아가는 풍자인가. 우리는 그래도 임기응변식 생활규범에 젖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밝은 내일을 꿈꾸며 살고 있다. 오늘의 삶에만 급급한 나머지 앞날을 대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다는 말인가. 우리는 안이한 생각과 자기도취에 빠져 방심해 있다가 환난을 당한 바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 97년 11월부터 기습해온 IMF한파도 우리들의 대비부족에서 기인했다. WTO체제 출범 이후 우리가 곧바로 가다듬어야 할 거시경제지표의 미설정, 미시경제의 미조정 등이다.

역만장자라도 헤프면 곧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것도 자기만 망하면 그뿐인데 요즘의 우리 공동체사회에서는 그 옆사람 이웃과 멀리까지 그 재앙이 미친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개방화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과소비와 외화유출 기업의 자생력 약화, 금융비리의 횡행, 고임금 고비용 등에 의한 국내산업의 공동화현상, 단기에 왜곡과다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마침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제 이쯤 당했으면 대오각성해야 한다. 나는 곤이지지(困而知之)란 말을 쓰고 싶다. 곤궁에 처해 봐야 드디어 깨닫고 느낀다는 뜻이다.

자본주의 경제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될 뿐이다.

영국의 유명한 구성주의자 데니스가보는 "역사는 숙명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능력,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지워진다"고 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했다. 우리 모두 제너럴대로 지닌 노후우를 힘껏 발휘하여 알찬 삶의 계획을 세우고 보다 성실히 노력해 나가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황동규(21회) 국제신문 이사대우 발탁

황동규동문(21회)은 국제신문 편집국장 재임 중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이사대우겸 편집국장으로 영진했다.

황동문은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국제신문 기자로 입사, 언론계와 인연을 맺은 이래 일선 경찰서와 부산시경 법조 시교 육청 시청 출입을 거쳐 사회부장 경제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손세일(8회) 국민회의 원내총무



손세일동문(8회·국회의원)은 4월 12일 국민회의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총무로 선출됐다. 손동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언론인 출신 3선의원으로 국제문제에 식견이 넓어 민주당 시절 통일 국제위원장을 두차례

나 역임했다. 합리적이며 온화한 성품이어서 대인관계가 좋고 동창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후배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열성파이다.

국민회의 창당 이후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국민회의가 자민련과의 국회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1순위로 선택된 통상산업위원장에 기용됐다. 손동문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11, 14,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국민회의 전당대회회장을 지냈다.

오거돈(21회)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오거돈동문(21회)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재임 중 5월 1일 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영진했다.

서울대 철학과와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행정학 석사)한 오동문은 행정고시(14회)에 합격, 부산시 문화체육담당관 안기부 및 청와대 과건 동구청장 시 교통관광국장 내무국장 종합개발사업단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오동문은 매사가 소탈하고 유머감각이 뛰어나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특히 한국일보가 건국 50주년 특집으로 기획한 '21세기 한국을 이끌 주목받는 차세대 50인'에 공직자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각종 동창회 행사에 빠지는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헌신적이며, 선후배 동문의 애로사항 해결과 유대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윤진현(7회) '남북경협...' 등 논문 발표



윤진현동문(7회·동기회장·동아대 명예교수)은 최근 부산정치학회보 제8집 제2호에 '남북경협'의 과제와 전망'이란 논문을, 국민유리하는집 제11집에 '개화사상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윤동문은 올해 3월 초부터는 부경대 정치언론학부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다.

김광일(12회) 부산시 변호사 활동



김광일동문(12회·변호사·전 대통령비서실장)은 5월 1일 부산에 법무법인 '충정' 부산사무소를 개설,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15회)에 합격한 김동문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그만 두고 변호사로 새 출발했고, 제13대 국회의원 국민고충처

리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정책특보 등을 역임한 후 다시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본부동창회 부회장을 다년간 역임한 김동문은 동창회 활성화와 동문 유대 증진,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사업에 앞장서 왔다.

법무법인 충정은 30여명의 변호사 회계사 외국인변호사들로 구성된 종합법률사무소이다.

\*사무소: 부산 동구 초량1동 1205-22 삼성화재빌딩 6층, 전화 463-8844, 팩스 463-8686, 자택 731-1210.

성한표(15회) 한겨레신문 부사장 선임



성한표동문(15회)은 한겨레신문 신문담당 상무이사 재임 중 최근 이 회사 부사장으로 영진했다.

서울대 건축학과와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한 성동문은 조선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한 이래 75년 3월 '자유인론실천운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 수석편집부위원장 겸 민권사회비판위원회 경제담당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장 논설위원 기획담당이사 논설주간 이사 및 상무이사 신문총괄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 운영위원장 실업대책자문위원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2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박동문은 한양대 화학공학과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를 졸업했고 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텍사스주립대 교수를 거쳐 삼성전기(주)에 스타아웃됐다.

박동문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는 물론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주목되는 항공 우주 전자 정보통신 등 각종 분야의 핵심부품으로 응용되는 다중인쇄회로기판의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표준화 및 기술정보인프라를 구축해 PCB의 기술기반을 확립하고 양산기술을 축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 공로로 이번에 훈장을 받게 됐다.

박동문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는 물론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주목되는 항공 우주 전자 정보통신 등 각종 분야의 핵심부품으로 응용되는 다중인쇄회로기판의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표준화 및 기술정보인프라를 구축해 PCB의 기술기반을 확립하고 양산기술을 축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 공로로 이번에 훈장을 받게 됐다.



천료대 등단의 기회를 얻었다. 최동문은 본부 이사 및 부회장, 모교 육성회장 등을 지냈고 87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2월 경 남고 졸업식에서도 장학금 1백50만 원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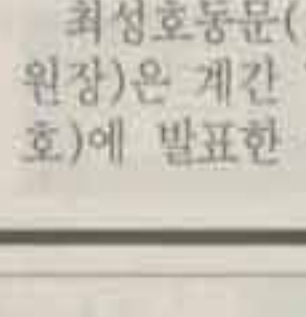
강민수(18회)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강민수동문(18회·전 재정원차관)은 최근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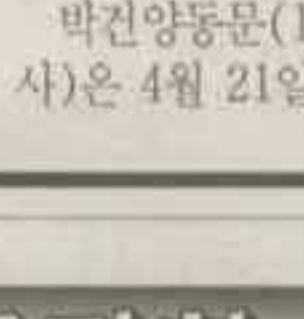
강동문은 서울대 법대와 뉴욕대 대학원을 졸업(경제학 석사)했고 행정고시(8회)에 합격한 후 국제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주미한국대사관 재무관 재무부 이재·보험·국제금융국장 국회 재무전문위원 재무부 이재국장 세계실장 관세청장 통상부(현 산업자원부)차관 재정원차관 등을 역임했다.

최성호(17회) 수필 추천받아 등단



최성호동문(17회·과부비노기과의원장)은 개간 '문예운동'(98년 겨울호)에 발표된 수필 '나의 유리닝'이

박건양(17회) 科技발전 유공 산업훈장



박건양동문(17회·삼성전기 전무이사)은 4월 21일 오전 11시 한국과학

제9회동기회 임원·회원 일동

회장  
林鍾助  
부회장  
金成宇  
金英坤  
尹日明  
田仁圭  
田國祚  
감사  
劉今烈  
申釋鉉  
총무  
崔性旭

회원  
姜大奉  
姜成龍  
高守弘  
孔承杓  
具定雄  
權鳳憲  
權五吉  
權喆根  
吉永杓  
金成鐸  
金守安  
金英國  
金永文  
金英植  
金永喆

金汪國  
金容冠  
金容煥  
金昱經  
金源昌  
金乙淵  
金再圭  
金丁求  
金政權  
金鍾求(A)  
金鍾求(B)  
金鍾  
金鍾守  
金鍾淵  
金綜鎬  
金昌局

金採玉  
金台永  
金鐸聖  
金鴻局  
盧道鉉  
文正德  
朴唐熙  
朴商英  
朴錫萬  
朴一平  
朴暉錫  
朴宗根  
朴春敬  
朴漢福  
朴化哲  
朴浩一

朴熙喆  
朴大鉉  
裴光植  
裴允漢  
裴鍾台  
卞昌彦  
徐豪成  
成百奎  
薛容漢  
宋德龍  
宋成得  
申道洙  
申明植  
辛容翼  
安圭鉉  
安基宙

梁成吉  
梁禹錫  
梁一模  
梁鍾浩  
嚴太均  
吳世贊  
元重喜  
劉炳哲  
劉鳳萬  
尹炳鏞  
尹性泰  
尹鍾斗  
尹辰漢  
李根宗  
李大奎  
李東九

李東炫  
李辨俊  
李相濟  
李相苗  
李水用  
李舜景  
李鍊衡  
李榮龜  
李榮福  
李丁佑  
李正鐸  
李鍾英  
李柱漢  
李煥大  
林根局  
張炳局

張榮鎮  
丁海敦  
丁幸權  
鄭吉和  
鄭錄  
鄭三東  
鄭泰鳳  
趙石武  
趙善洽  
曹圭陽  
曹連文  
曹二鎬  
趙柱石  
趙鍾來  
朱聖太  
車震漢

崔在鳩  
崔漢成  
崔海洙  
崔鉉五  
秋光  
河在煥  
韓東大  
許萬錫  
化太珍  
黃永善  
羅禹植  
崔宗道  
金載滿  
沈順奉



# 홈커밍 “활짝”... 신선한 만남

## 제23회 졸업 30돌

### 부부동반 2백여명 은사계 큰절 “벌써 知天命... 다시 뛰자” 결의

제23회동기회 졸업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축제가 5월 1일 (토) 오후 2시20분 경남고 국산기념관에서 동문·가족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려 우정을 재확인했다.

이날 학교 정문과 행사장 입구에는 'Boys, be ambitious! Home Coming Day'라는 현수막이 각각 걸려 행사장에 들어서는 동문·가족들의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김종규회장과 구자섭재경회장이 공동 주최한 이날 축제에는 25명의 은사와 동문·가족 1백50여명, 본부동창회에서 정소영 회장(6회) 조대재부회장(7회) 최득호사무국장(11회) 김병수 총무(22회) 등, 김봉길교장(8회), 제24회 정기총무와 제33회 윤성국회장 및 김재선총무, 부산고 22회 천장우회장 및 이준수 오재형총무 등 모두 2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김회장은 회고사를 통해 “졸업20주년 행사가 잊고 갈듯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다”며 “인생 지천명의 나이로 다시 만났으니 모두 건강하게 살며 스스로 자기 직분에서 더욱 도약하자”고 말했다.

전상대동문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은 은사와 내빈 소개, 경과보고, 회장 회고사, 본부회장 및 은사대표 격려사, 교장 환영사 등으로 이어졌다.

정본부회장은 유공동문 표창을 통해 박기옥(준비위원장) 고한수(웅진개발 대표) 이원희동문(재경준비위원장)에게 공로패를, 박철병(산동회계법인 본부장) 백창영(협성해운 이사)에게 금배지를 각각 수여했다. 또 김교장은 유진무(동성종합건설 대표) 이봉철(재경 총무) 김태용동문(부경대 교수)에게 각각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재경회장은 모교기념사업으로 경남고 야구부 샤워실비 5백만원, 교사 연구비 3백만원(경남고 2백만원·경남중 1백만원), 재학생 노트 3천1백권을 각각 기증했다.

1부 기념식은 오후 3시10분 교가제창과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해운대 파라디호텔 2층 대연회실에서 열린 2부 ‘추억 한마당’에는 동문 1백48명과 가족, 은사 등 모두 2백여명이 모여 노래와 장기자랑 등으로 우정을 쌓았다.

이어 제3부 ‘가든파티’가 이날 밤 9시30분부터 12시까지 호텔 잔디광장에서 열려 축하 폭죽을 터뜨리는 가운데 생맥주로 밤을 지냈다.

특히 동문·가족 1백여명은 축제 뒷날인 2일 오후 12시30분부터 2시40분까지 테즈락호를 타고 아름다운 부산 앞바다를 유람하면서 선상파티를 즐겼다.

홈커밍데이축제는 동문은 물론 가족까지도 기다림 속에 가슴 설레게 한다. 훌륭한 은사님을 뵙게 되고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푸는 ‘신선한 감각’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졸업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제23회동기회와 모교 졸업 후 첫 축제를 맞은 제33회동기회 졸업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축제를 지상중계한다. <편집자주>



제23회동기회 동문·가족들이 졸업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뒷날인 2일 테즈락호 선상 파티와 함께 부산 앞바다를 유람한 후 테즈락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왜 이리 좋노...” 졸업 20년만에 첫 홈커밍데이축제를 맞은 제33회동기회 동문들이 2부 ‘우정의 무대’ 잔디광장에서 가족들과 어울려 노래와 춤으로 신명을 팔치고 있다.

## 제33회 졸업 20돌

### 첫축제 감격... 학급별촬영 異彩 “21세기 주역 사명감 드높이자”

제33회동기회 졸업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축제가 5월 1일 (토) 오후 5시30분 경남고 국산기념관에서 4백35명의 동문·가족들을 비롯해 은사, 동창회 임원 등 모두 4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영원한 마음의 고향 ‘구덕 동산’을 떠난 지 20년만에 모교를 다시 찾아와 베푸는 첫 축제여서 4백여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감격 속에 묻혔다.

윤성국회장과 손학근재경회장이 공동 주최한 이날 축제 1부 기념식은 김재선총무의 사회로 은사(박찬우 당시 교장선생님 등 20여명) 및 내빈 소개, 경과보고, 회장 회고사, 환영사(김봉길 교장·8회) 격려사(은사 대표) 축사(정소영 본부회장·6회), 사은품 증정, 유공자 표창, 기념사업비 및 동창회장학급 기증, 교가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윤회장은 회고사를 통해 “우리는 모교 졸업 후 20년 사이 사회의 초석이 되는 데 기여해 왔다”며 “21세기의 주역이 되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더욱 선양하자”고 말했다.

정 본부회장은 김진용 황 철동문에게 공로패를, 신영재 최정현동문에게 금배지를 수여했다. 또 김교장은 김정옥 박명진 박상국 유선룡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班別 노래대항전 못잊을 ‘부산횃막’

이어 박명진 전 회장은 동창회장학급 4백만원, 황철 전 재경회장은 모교 발전기금 5백만원을, 이순환 울산회장은 교사 연구비 1백만원을 각각 기증했다. 또 박상국 동기회 야구감독은 모교야구후원금 50만원을, 김재용 마산창원회장은 재학생들에게 기념품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재경에서는 손회장과 최태준총무를 비롯해 동문 30명과 가족 등 98명이 참석했다. 또 캐나다 김영호동문이 참석해 환영을 받았다.

1부 기념식은 교가제창과 담임선생님을 모신 반별 가족사진을 촬영한 후 6시30분 폐회했다. 제2부 단합회는 이날 오후 7시 학교 체육관에서 막을 올렸다.

하현보동문(동서대 교수)이 감독한 단합회의 동문·가족들은 반별로 자리를 잡아 정답을 나누며 노래와 장기자랑 대항전을 벌였다.

김영복은사의 ‘미스 고’ 열창(은사 대표)과 진태호동문의 아들 장환군(당리초등고 3년)의 태권도시범 등이 객석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해성동문(해병 중령)이 행운대상을 뽑아 고급 카메라를 받았다. 단합회는 2차로 이어져 밤 12시까지 진행됐다.

한편 회장단은 축제 뒷날인 2일 오후 재경동문·가족 초청 오찬회를 자갈치 ‘미정횃집’(37회 오종현 동문 운영)에서 열어 상심한 부산횃막을 선사했다. 재경팀은 이날 오후 4시 재미을호 열차로 떠났다.

### 테즈락 선상파티 해상 유람 만끽

정본부회장은 유공동문 표창을 통해 박기옥(준비위원장) 고한수(웅진개발 대표) 이원희동문(재경준비위원장)에게 공로패를, 박철병(산동회계법인 본부장) 백창영(협성해운 이사)에게 금배지를 각각 수여했다. 또 김교장은 유진무(동성종합건설 대표) 이봉철(재경 총무) 김태용동문(부경대 교수)에게 각각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재경회장은 모교기념사업으로 경남고 야구부 샤워실비 5백만원, 교사 연구비 3백만원(경남고 2백만원·경남중 1백만원), 재학생 노트 3천1백권을 각각 기증했다.

1부 기념식은 오후 3시10분 교가제창과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해운대 파라디호텔 2층 대연회실에서 열린 2부 ‘추억 한마당’에는 동문 1백48명과 가족, 은사 등 모두 2백여명이 모여 노래와 장기자랑 등으로 우정을 쌓았다.

이어 제3부 ‘가든파티’가 이날 밤 9시30분부터 12시까지 호텔 잔디광장에서 열려 축하 폭죽을 터뜨리는 가운데 생맥주로 밤을 지냈다.

특히 동문·가족 1백여명은 축제 뒷날인 2일 오후 12시30분부터 2시40분까지 테즈락호를 타고 아름다운 부산 앞바다를 유람하면서 선상파티를 즐겼다.

제12회동기회 임원 명단			
<b>회 장</b> 李龍彦 동아대학교 의과대학교수·동아의료원 약제국장	<b>재경동기회 회장</b> 李圭滿 (주)K.M.L. 대표이사	<b>내과 과장</b> 金鍾錫 영지주유소 대표	<b>김승일</b> 김선일차과의원 원장
<b>수석부회장</b> 南基鎔 문교산업(주) 대표	<b>재경동기회 총무</b> 鄭寅奎 대화건업(주) 회장	金春光 전 부산시 농정과장	金聖贊 경남중학교 교장
<b>부회장</b> 金富煥 부산광역시 시의회 사무처장	<b>[지역·직능]</b> 정주지의 동창회 회장	金錫燾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백병원 산부인과 과장	金龍甲 부산정보대학 주임교수
金準錫 협성검정(주) 대표이사	具奉植 중북대학교 토목공학 교수	朴保國 (주)은성사 대표이사	金正秀 부산국제무역협회 조직위원장
張東錫 부경대학교 미생물학 교수	대구지역 동창회 회장	潘昌鎔 전 연성경찰서 서장	朴鍾鼎 전MBC 국장
鄭大德 대동벽지(주) 전무이사	金鍾源 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安相直 대동약국 대표	徐泰相 금양통운 대표
<b>총무부회장</b> 李昌大 대동토건(주) 부사장	울산지역 동창회 회장	嚴泰燮 동아대학교 자연대학교수	安永圭 전 부산의료원 원장
<b>감 사</b> 吳世正 전 연세구형 부총장	金鍾道 창일개발(주) 대표 회장	王漢均 대양노트공업사 대표	玉桂漢 코일리우학여행사 회장
	중·서·영도지역 회장	林成奎 영남기업사 대표	李守永 법무사
	金準錫 사상·사하·김서지역 회장	田永福 전 부산개발(주) 실무이사	林正明 부산대학교 토목공학 교수
	南基鎔 동·부산진·연제지역 회장	鄭錫守 전 8학군학원 원장	田判在 삼양통상(주) 부산공장 사장
	張東錫 남·수영·해운대·기장지역 회장	鄭榮喆 남성초등학교 교사	鄭棟植 동의대학교 영문학 교수
	權延相 변호사	趙哲元 법무사	鄭錫仲 제일간호학원 원장
		崔治煥 부천물산 대표	千九星 려키화재 신라출판대리점 대표
		河一民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鄭惠政 탁해정산부인과 의원 원장
		洪龍河 홍용하산부인과의원 원장	韓春培 부산과학교등학교 교장
		吉哲鍾 고려산업(주) 삼일감사	
		金鍾燾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동아의료원	
		金龍河 대동화원 대표	

투기리 사무실 : 전화 (051)243-8385  
팩스 (051)256-6856



### 단양팔경 구경

재경8회  
각 클럽 "기지개"

제8회 재경동기회(회장 이창규)는 단양팔경 구경 봄나들이를 계기로 활력 넘치는 모임을 펼치고 있다.

#### 이영창동문 스폰서

동기회는 4월 25일(日) 이영창 명예이사의 협찬으로 전세관광 버스를 이용, 충주나룻터~단양팔경(유람선)~고수동굴에 이르는 봄들놀이를 추진했다. 이날 나들이는 총각(?)들과 눈치재주가 유별난 공처가들로 짜여진 '신사들만의 한마당'이었다.

#### 팔선회 3월 바둑대회

우승 손대근·준우승 배우원  
팔선회(회장 이유희)는 3월 20일 제일기원에서 정기월례바둑대회를 개최, 손대근 동문이 6승 무패로 우승을 차지해 2단으로 승단했고 배우원동문이 4승 무패로 준우승.

이날 수담에는 이회장을 비롯해 신현주 손대근 이종근 강성태 이창근 배우원 김진석 추정화 동문 등 모두 9명이 참석했다.

#### 골프패션 김태규·김정화

잔디회(회장 이창규)는 4월 1일 안성 C.C에서 4월 월례 골프대회를 열어, 남자부 우승 김태규·준우승 홍기성·행운상 전영배 동문이, 여자부 우승 김정화·행운상 원문자씨가 각각 차지했다.

#### 북한산·관악산 등반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는 3월 27일 북한산의 불광동코스(주두리바위(일명 O꼭지바위))를 지나 향로봉을 넘어 늘 점심식사를 정답게 하는 장소에 모여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토해냈다.

문규환 이희순 조운제 김영학 노재복 김영철 박성재동문 등 7명은 점심식사를 마친 후 토론을 통해 △방향성 △상호승리성 △감정이입성 △효과상승성 △자기왜신성을 위한 계속되는 영적 정신적 신체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다하지는 뜻을 결집했다.

한편 같은 달 20일에는 김영학 조운제 임영택 김태용 노재복 김영철 박성재 동문 등 7명이 관악산 깃대봉~망월사 코스를 등산했다.



일광산에 오른 제8회 동문·가족들이 "정상정복" 감격을 나누며 정다운 표정 한 커트 "철락".

## "젊음 물살처럼 흘렀어도 산 오르면 '청춘' 희생"

경팔산우회 가족동반 일광산 중주

#### 독일 우동천부부 "대관영"

제8회동기회(회장 박동렬)의 경팔산우회 주관 가족동반 봄철산행대회가 4월 25일 부산 기장 근교 일광산에서 펼쳐졌다.

심재홍산우회장이 앞장선 산행에는 독일에서 온 우동천동문 부부를 비롯해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행은 심신단련을 통한 우정 축적이 목적이지만 우동문 부부 환영, 부인들의 하소연(?) 청취, 새 임원진 축하 등 몇가닥의 뜻이 곁들여져 즐거움을 더했다.

백두사를 거쳐 일광산에 오르기 위해 나선 일행은 절골에서부터 피약발에 시달렸다. 숲길도, 백두사 경내도, 산길 능선도 험악거리는 산꾼들과 함께

계 때 이른 여름더위(?)에 휩싸여 지쳤다. 모두들 헉헉거리는 것을 나이 탓이 아니라 날씨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산끝 큰 바위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볼 때 모든 괴로움은 씻겨 나가면서 상쾌했고 기분이 새털처럼 가벼웠다. 다시 발길을 돌려 내려오다 시원한 숲그늘에서 도시락을 풀고 소줏잔들을 나눴다. 그리고 한바탕 새들처럼 조잘대다가 낮잠에 빠져 '별미'를 맛보았다.

산을 무사히 내려온 일행은 '사랑방'에서 회식, 소줏발이 서자 여기저기서 '청춘을 돌려다오'를 연창하며 화합을 다졌다. 산으로 간 이유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만났다가 기분 좋게 헤어지는데 있다는 것을 먼 훗날에야 알까..

### '경열 학급수업시간표' 인기

재경 10회, 각종 행사 등 캘린더로 구성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5월						
2	3	4	5	6	7	8
		江北火曜會	어린이날		태니스대회 (보.오.미.영.한.산.영)	
9	10	11	12	13	14	15
		安山火曜會	용마포진회 (07:30)			
16	17	18	19	20	21	22
		汝矣島火曜會			태니스대회 (보.오.미.영.한.산.영)	
23/30	24/31	25	26	27	28	29
구안회, 자.크.이, 영.산.영		江南火曜會		경북외교도 (12:00 자문CC)		

제10회 재경동기회(회장 김성태)는 회지 '경열·미니소식'을 통해 매월 '경열 학급수업시간표'를 발표, 동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기회 이사회와 각종 행사, 친목회 모임 등을 캘린더로 구성해

배포하기 때문에 휴대하거나 책상 위에 놔두고 활용하는 데 좋다. 혼사나 행사는 예정일 60일 전에 알려줘야 일정표에 다룰 수 있다. 참고로 '5월 경열 학급수업시간표'를 그대로 소개한다.

## 10월엔 지리산 오르기로

대전·충남 용마가족 계룡산 등반

대전·충남지역동창회(회장 정운모·18회·정운모정형외과의원장)의 용마산악회 주관 동문·가족 봄철등반대회가 3월 14일 계룡산에서 펼쳐졌다.

김찬만산악회장(20회·한일관제사무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은 김대업산행대장(20회)의 리더로 오전 10시 30분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에서 시작해 남매탑과 금잔디고개를 오른 뒤 다시 상신리마을로 내려왔다. 산에 오를 때는 구름이 낀 날씨가 산을 다 내려오자 빗방울을 뿌려 다행이었다. 산행에는 정 동기회장을 비롯해 강수성(18회) 김 산악회장 김 산행대장 김

성수(21회) 이명훈(23회) 조대우(25회) 임무택(29회·산악회 총무)부부 자녀 4명 등 모두 13명이 참가했다.

일행은 등산로 식당에서 파전 도토리묵 닭찜 등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올해 산행계획으로 △5월중 보문산 등반 △7, 8월중 충북지역동창회와 속리산 합동 등반 △10월중 지리산 노고단~천왕봉 중주 등반 등을 확정했다. 특히 즉석모금을 통해 산악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 44만원을 마련했다. 참석동문들은 이 자리에서 호주머니 사정에 따라 2만~10만원씩을 쾌척, 훈훈한 정을 모았다.



### 慶南中高 第22回 同期會 사무실 이전 개소식

1999. 5. 4(화) 19:00

제22회 사랑방 유림빌딩 4층으로 옮겨

제22회동기회(회장 구자룡)는 5월 4일 동문들의 센터인 사무실을 부산 중구 부평동 유림빌딩 4층(실면적 25평)으로 옮기고 자축연을 열었다. 구자룡이 주재한 이날 이전 개소식은 6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단합회로 축하의 뜻을 기렸다.

### '우정의 江心'남아

제18회 가족동반 1박2일 민물낚시대회

대어 1등 박귀환

제18회동기회(회장 강동섭) 친선 민물낚시대회가 4월 24~25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진주시 지수면 청정저수지에 열려 '우정의 강심(江心)'을 낚았다.

박귀환낚시회장이 주재한 이번 행

사에서 동문·가족 30여명은 숨은 실력을 과시한 결과 대어상 1등 박귀환, 2등 홍창우, 3등 손영근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일행은 행사 첫날 저녁 숙소인 '가화정'에서 화합과 결속을 재확인하는 잔치예를 열고 노래와 장기자랑 한마당을 연출했다.

### 용마자동차매매상사

신평자동차매매단지내(14호)

안녕하십니까?  
본 상사는 대전인 신차영업에서 다진 Know-How로 새차에서 중고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Total Market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동문 선우배를 돕겠습니다.

**대표 최규철(37회)**  
과장 고영민(40회)  
과장 최봉재(40회)  
부산시 사마구 신평동 370-6  
**TEL : 051)294-0055**  
**FAX : 051)294-0056**

## 제14회 동기회 임원 명단

#### 고문

文雲龍 孫光雄 姜周信 申吉松 朴炳善  
尹英鉉 柳聽一 朴孝健 李吉尾 鄭時榮

#### 회장

盧守德

#### 부회장

鄭相振 金永植 金谷浩 金義雄 文聖弼  
朴龍華 申鉉浩 李鍾敏 韓圭桓 黃元奎

#### 총무

金健鎬 朴清弘

#### 이사

姜丕伊 具滋信 金 勇 金興寬 金青秀  
金 充 金利吉 金益明 金友龜 金在道  
孔七星 朴文男 朴鍾文 朴壽寬 朴純一  
朴憲穆 朴清吉 朴春濟 潘米太 李明宰  
李東植 李義郁 李載仁 李承午 李孝根  
林宜秀 梁晶宇 廉相周 安相煥 劉貞鎬  
張三植 鄭義光 曹泳鳳 趙鍾均 鄭三永

鄭鉉求 陳聖太 辛容眞 車東日 崔忠洛  
崔慶烈 崔永煥 河光鎭

#### 지역이사

金 寬(마산) 崔盛雄(마산)  
曹圭台(거제) 尹龍男(거제)  
張元柱(울산) 金泰植(울산)  
徐廷瑛(진주) 金榮雨(서울)

#### 감사

朴重철 金和玉



김광수(20회), 워싱턴문학상 '수필부문' 입상

사향(思鄉)일기 ①

출근길

1997. 12. 10(수)  
호림 안개 비

이십 오 마일, 한국의 리(里) 단위로는 일백리나 되는 출근길을 가기 위해 굶은 날씨를 감안하여 일찍 나섰다. 7시가 지났는데도 안개 낀 겨울 아침은 어둡다.

동네길을 두어 번 돌아서 왕복 각 한가닥씩인 하이웨이에 접하다. 사오년 사이에 늘어난 개발주택들로 인한 차량의 증가로 신호등이 없는 분주한 하이웨이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오늘 같은 출근길에는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운 좋게 스톱사인에 서자 이내 지나가는 차량의 양보를 받아 좌회전을 하여 흐름에 합류하다. 워싱턴으로 출근하는 270번 도로에 들어서면 수많은 길에서 쏟아져 들어온 차량들로 남행 6차선을 꽉 채워 큰 강을 이루며 흘러간다.

오늘 같이 안개 끼고 비오는 아침에는 흐름이 중지되어 혼잡을 빚는 수가 많다. 혼란할수록 교통도덕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고없이 끼어들러는 양떼들에게 몇 번이나 자리를 양보한 것은 나의 마음이라기보다 앞서 받은 친절을 되돌려준 것이다.

대하를 이루어 함께 가던 차량들이 강변도로로 빠져나가면 숫자가 쑥 줄어들고 시내로 들어서면서 제각기 일터를 찾아 방향을 잡는다.

인생행로도 학교, 직장, 교회, 사회나 친목단체 등을 통해 무리를 이루었다가는 뿔뿔이 흩어져서 마침내 제 갈길로 가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닐까.

양떼족을 많이 만나는 여행은 불편한 여행이 되겠고, 서로 양보하며 가는 길은 쾌적한 여행이 될 것이다.

고국을 떠나 워싱턴에서 사반세기를 살아 온 여행에 양떼로 비취진 적은 얼마나 될까. 온 길보다 훨씬 짧은 나머지 길은 어떻게 가야 하나. (계속)

다음 글은 '워싱턴메디아'가 현상 공모한 제7회 워싱턴문학상 수필부문에 입상한 김광수동문(20회·사진)의 '사향(思鄉)일기'이다.

이번호(제308호)에는 입상작 중 '눈꽃'과 '출근길' 등 두 편을, 다음호(제309호)에는 'Cross Stitching'과 '머리 속여' 등 두 편을 연재한다.

김동문은 현재 워싱턴D.C.에서 경영하고 있는 신사복 전문점 'Christopher Kim's'의 대표이다. 77년에 문을 연 이

곳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동문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72년)한 후 공화당 사무국 요원 공채9기로 근무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이메리칸대 경영대학원에서 대중홍보학을 전공(78~84년)했다. 80년대 초반에는 워싱턴 한인JC 회장을, 중반에는 워싱턴 실업인협회 이사 및 장

학위원을 각각 맡아 활약했다.

<편집자주>



눈꽃

1997. 12. 9(화)  
눈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똑같은 외부의 작용이 한갓 뜻없는 지나침이 될 수도 있고, 은빛으로 채색되어 우리의 마음을 꾸미는 그림으로 되어서 상대방에게 되



비쳐 줄 수도 있겠다. 한송이의 눈꽃으로 상대를 기억하기보다 차가운 빗물로 흘러버린 수많은 만남과 세월에 대한 회한이 가슴을 스친다.

추울 거라던 예상과 달리 내내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밤새 내리던 굵은 비가 새벽녘에 급강하한 기온으로 말미암아 함박눈이 되어 내렸다. 창밖에 흩날리는 눈송이를 보노라니 오십을 지난 이 나이에 어릴 적의 가벼운 흥분을 되새긴다. 길다란 민둥산과 시내를 두 개나 건너 십리를 걸어서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시골의 흙마당과 야산에는 눈이 참 잘도 쌓였었는데...

이곳의 Drive Way에 내린 눈은 열전도가 잘 되어 눈이 닿자마자 녹아서 빗물이 된다. 그러나 잔디밭에 내린 눈은 제법 설경을 이룰 만큼 되었다.

눈송이가 아스팔트 위에 내려 금새 빗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눈송이가 풀밭에 내려서 보송보송한 솜털처럼 포근한 정취를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모교소식

모교 개교 57주년 기념식

모교 개교57주년 기념식이 4월 30일 오전 경남교 체육관에서 교직원 재학생 등 1천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김봉길교장(8회)은 기념사를 통해 "21세기 주역이 될 재학생 여러분은 항상 도전정신으로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재학생들은 백일장 등 입상자

시상식에 이어 체육행사를 벌였다. 동창회에서는 재학생들 생일기념으로 노트를 선물했다.

한편 경남중도 김성찬교장(12회) 주재로 기념식을 열었고 재학생들은 동창회로부터 생일선물(노트)을 받았다.

경남중야구 "경사" 소년체전 부산대표 선발 전국대회 본선 진출

모교 경남중 야구팀(감독 노재완·

38회)은 4월 3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제42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종합야구대회 겸 제2회 전국종합야구선수권 예선대회에서 우승, 오는 6월 25~7월 2일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특히 모교는 4월 1~4일 같은 야구장에서 열린 소년체전 선발 야구 예선전에서 4전 전승으로 우승, 부산대표로 선발됐다. 모교는 3월 16일 이곳에서 열린 99종합야구 춘계리그에서도 4전 전승 패권을 차지했다.

대통령배 야구 협찬 "감사합니다"

홍용찬(16회) 1백만원  
이범렬(17회) 1백만원  
정기조(29회) 70만원

제33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주최 중앙일보사)에 출전한

모교 야구팀을 격려하기 위해 홍용찬동문(16회·우성해운 부사장)이 1백만원, 이범렬동문(17회·산정 대표)이 1백만원 상당 회식 제공, 정기조동문(29회·중앙대 야구감독)이 7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협찬했다.

동문이 펴 낸 NEW BOOK

'당신의 위장은 건강...?'

양동문(11회) 지음



양동문 동문(11회·부산대의대 교수)은 위장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을 제시한 '당신의 위장은 건강하십니까'를 발간했다(고려의학·5천원).

양동문은 현재 대학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는 한편 대학병원에서는 소화기내과 및 소화기내시경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다.

양동문은 이 책을 통해 위장계통 질환으로 고민하는 환자들이 수없이 묻고 호소하는 증상들에 대해 알기 쉽게 대답해주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도에서 대장

까지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중심으로 처방전을 내놓았고,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화기계의 질병 가운데 환자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양동문은 부산대의대를 졸업(의학박사)한 후 미국 밴드빌트 의대 방문교수 및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대 소화기병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미국소화기병학회 회원, 대한소화기학회 및 소화기내시경학회장 부산대의대 내과 주임교수 부산대병원 내과과장 등을 역임했다.





졸업 45주년 기념

일본여행 추진

제8회 박동렬회장 유임



제8회동기회는 3월 31일 오후 6시 30분 부산역 앞 광장호텔 2층 그릴에서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박동렬회장(해운대 성심병원장·사진)을 유임시켰다.

박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 △회장임기 1년 △회계년도 12월말 변경 △연회비 5만원 등의 개정회칙안 등 주요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임원개선을 통해 이창우 이회욱동문을 감사로 선임했다.

특히 총회는 기타 토의에서 5월 중 졸업45주년 기념 가족동반 일본여행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제9회 회장 임종조 총회열고 임원 개선



제9회동기회 99년 정기총회가 3월 25일 오후 6시30분 부산 서면 '대림뷔페'에서 열려 임종조동문(전 성업공사 지사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유금렬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0여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회 장=임종조 △부회장=김성우 김영근 윤일명 전인규 전국조 △감 사=유금렬 신석현 △총 무=최성욱.

동문찾기 적극 전개 지역간 유대 강화

김해 최태환회장(13회) 유임



김해지역동창회는 4월 9일 오후 7시 김해시 삼정동 '목화뷔페'에서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최태환회장(13회·대한부회장 대표·사진)을 유임시켰다.

최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25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특히 이날 선출된 회장단은 △동문찾기운동을 통한 동창회 활성화 △동창회 수첩 제작 △지역(진영읍·장유

면)간의 유대 강화 등 역점사업을 밝히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해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회 장=최태환(13회) △부회장=박세갑(15회) 김영우(19회) 김영학(31회) △감 사=박명진(33회) 도창호(35회) △총 무=이광희(30회).

비 쏟아져도 60여명 모여 "아직도 청춘" 의욕 과시 제14회 노수덕 신입회장



제14회동기회는 4월 9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신문사 24층 '크리스탈뷔페'에서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노수덕동문(금양 회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시영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60여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이날 모임은 우천으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으나, 오랜만의 정다운 만남이어서 그간 쌓였던 회포의 실타래를 맘껏 풀었다.

제15회 임원진 구성 회관운영위장 손부홍

제15회동기회 정기총회장(코스콤 대표이사)은 3월 26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부평동 본부회관 14층 '골든뷔페'에서 열린 99년 정기총회의 집행부 구성권 위임 결의에 따라 최근 회장단과 이사 등을 선임했다. 특히 정회장은 동기회회관 운영위원장에 손부홍동문(정형외과의원장)을 지명했다(집행부 명단은 5면 광고 참조).

재경 15회 김송평 회장 유임



▷재경 15회=4월 30일 오후 7시 상록회관에서 99년 정기총회 개최, 김송평회장(사진) 유임 결의.

김회장 유임은 동기회 자문위원 및 이사들이 16일 저녁 '안박사고기집'에서 모임을 갖고 정기총회 대책 협의과정에서 김회장의 동기회발전을 위한 헌신적 봉사를 높이 평가하고 재신임을 결의한 결과.

제17회 새 집행부 출범 신입회장 박가식

제17회동기회는 3월 25일 오후 7

동기회 임원개선



시 부산 자갈치 호포집에서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박가식동문(우성정형외과의원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문석웅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동문자녀 장학금 5백만원 지급과 동료 한 결산보고를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특히 총회는 △생활이 어려운 동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계속 △생활이 어려운 동문을 위한 생활안정기금 지급 등을 결의했다.

재경 17회 김홍규 회장



▷재경 17회=2월 9일 한식집 '이리오너라'에서 99년 정기총회 개최, 김홍규동문(삼성항공 감사·사진) 신임회장 선출. 25명 참석.

총회는 부회장이 직능회 회장을 맡기로 의결함에 따라 △삼금회장 최홍 △만우회장 이병현 △기우회장 강정일 △산우회장 안상천 △테니스회장 박철우 △경신회장 김영직 △일급회장 김부근동문을 각각 선임. 또 총무 이재효 부총무 정왕주 동문 지명.

제17회 첫 이사회

제17회동기회 올해 첫 이사회가 4월 16일 오후 7시 산정농원(이법렬 동문 운영)에서 열려 99년 예산안 등 주요의안을 심의했다.

박가식회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40명이 참석, 예산안을 비롯해 동기생 자녀 장학사업을 계속 펴고 생활이 어려운 동문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제18회 강동섭 회장



제18회 동기회 99년 정기총회가 3월 26일 오후 7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신문사 24층 '크리스탈뷔페'에서 열려 강동섭(소아과의원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준길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총회

는 김태균총괄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50여명 참석.

총회는 임원개선을 통해 수석부회장에 임도근동문을 선임하고 다른 부회장과 이사 선임권을 강 신임회장에 게 위임했다. 강 신임회장은 총무에 박기환 천익주 동문을, 홍보담당에 육병규동문을 각각 임명했다.

제20회 김대원회장 유임



제20회동기회는 5월 7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팔성관광 4층 동기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대원회장(한도실업대표 사진)을 유임시켰다.

김대원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집행부를 유임했다.

재경 20회 김두수 회장



▷재경 20회=3월 12일 서초동 '춘추추동'에서 99년 정기총회 개최, 김두수 동문(대한스위스화학 대표이사·사진)을 신임회장 선출.

△부회장=구본홍(여목회) 김성한(경우회) 김홍직(의약회) 남명우(이목회) 박승현(야구회) 변기석(금목회) 성인표(이공회) 심원섭(정오회) 이기복(스물정우회) 이맹기(스물선배회) 이석창(경록회) 조준섭동문(백두산우회) △재무이사=김태곤 △총무이사=우성하 △감사=천현주.

"내년 홈커밍 대비를" 재경 24회 정영덕 회장 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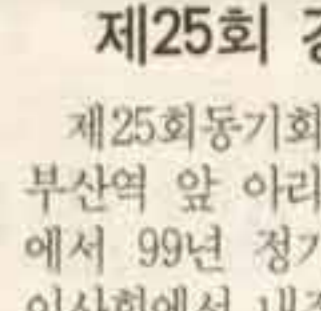


▷재경 24회=1월 22일 오후 7시 강남 '한국회관'에서 99년 정기총회 개최, 정영덕회장(성형외과의원장·사진) 유임. 45명 참석.

정회장은 김병수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동기회보 편집위원장에 하 옥동문을, 총무에 이종구동문을 각각 선임.

앞서 정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가 시작되는 내년은 졸업 30주년기념 행사가 열리는 중요한 해"라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사랑방 곧 마련" 제25회 강석철 회장



제25회동기회는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역 앞 아리랑관광호텔 대연회실에서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달 이사회에서 내정한 강석철동문(동서대재단 사무국장)을 신입회장으로 추인했다.

김규진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국회의원인 박종용동문 등 50여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강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숙원 사업인 동기회사무실을 마련해 조직 활성화에 새로운 발판으로 삼겠다"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회 장=강석철 △부회장=김길수 등 20명 △감 사=김상수 △총 무=옥동훈.

재경 25회 정철수 회장



▷재경 25회=4월 27일 오후 7시 강남 '대호'에서 99년 정기총회 개최, 정철수동문(일신화학 대표·사진)을 신임 회장 선출.

△부회장=김재홍 신경학 도재문 이성민 우경옥 이기상 하안진 김도현 △감사=이길현 △총무=박철성.

재경 27회 안중식 회장 유임



▷재경 27회=2월 25일 대치동 '소호호프'에서 99년 정기총회 개최, 안중식회장(C&M 시스템 대표·사진) 유임. 20여명 참석.

총회는 결산보고 후 집행부 구성을 안회장에게 위임.

경부합동 단합회 추진 재경 30회 김부종 회장 유임



▷재경 30회=2월 26일 서초동 '초가집'에서 99년 정기총회 개최, 김부종회장(사진) 유임.

김회장은 △부산과의 합동단합회 개최 △동기회 사랑방 운영 △기금확대 △취미활동 활성화 등 올해 4대 추진 사업계획 발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김해지역동창회

崔泰煥(13회)=김해지역동창회장. 대한부회장 대표. 0525-329-1678. 011-590-2728. (자택)김해 서상동 3. 0525-335-2728

朴世甲(15회)=김해지역동창회 부회장. 신희 전무이사. 0525-322-6003. 017-556-8225. (자택)김해 삼정동 화인아트빌라 101동 601호. 0525-333-8383

金永祐(19회)=김해지역동창회 부회장. 대청농산 대표. 0525-333-7771. 011-868-2588. (자택)김해 봉황동 455-2 백조아파트 1동 206호. 0525-333-7772

李光熙(30회)=김해지역동창회 총무. 경남공영(주) 대표이사. 0525-326-4100. 017-550-4477. (자택) 김해 동상동 1035 마미맨션 207호. 0525-335-2053

金鈴學(31회)=김해지역동창회 부회장. 메디팜 김해약국대표. 0525-327-6688. 018-526-5256. (자택) 김해 어방동 499 대우유토피아아파트 102동 605호. 0525-335-0242

朴命珍(33회)=김해지역동창회 감사. (주)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 0525-325-0900. 017-571-0900. (자택)김해 어방동 대우유토피아아파트 104동 804호. 0525-336-6898

都昌浩(35회)=김해지역동창회 감사. 도창호내과의원. 0525-336-2920. (자택)김해 어방동 대우유토피아아파트 104동 1703호. 0525-337-5429

제 6 회

崔甲永=영남루데이 수석편집위원. 053-424-8100. (자택)대구 달서구

어디서 무엇을

상인동 동방아파트 101동 309호. 053-636-9977

金道泰=4월 3일 모친 별세

박진구=4월 10일 별세

朴億植=5월 2일 해운대 비치호텔에서 장녀 수애양 결혼

김운배=5월 5일 국제신문사 4층에서 장남 성우군 결혼

琴 瑛=5월 16일 해운대 비치호텔에서 장남 덕현군 결혼

제 8 회

金成浩=4월 5일 대한교원공제회 인천회관에서 차남 우원군 결혼

沈載鴻=5월 2일 국제회관 4층에서 장녀 결혼

文炯佑=(자택이사)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65 문화그린맨션 2동 712호. 051-741-5307. 017-331-6715

李熙玉=5월 9일 삼보예시장 2층 홍실에서 장남 결혼

金炯璧=3월 3일 조세의 날 은탑산 업훈장 수상

朴基弘=(자택이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 큰마을 대립아파트 112동 1901호. 0344-914-3389

姜敬珠=(자택이사)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305동 105호. 02-573-1565. 016-320-8847

申鉉周=장녀 기영양 서울대 인문대 가정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 수여

李哲昊=3월 24일 순환으로 별세

金宇城=울산대 지역발전대학원장. 3월 28일 모친 별세

제 9 회

朴暉錫=3월 30일 부인 지병으로 별세

朴宗根=3월 31일 동명철공(주) 대표이사 사임

申釋鉉=4월 17일 목화예식장에서 장남 결혼

安圭鉉=5월 1일 차녀 결혼

제 10 회

張仁睦=금정쌈밥집. 부산 금정구 구서2동 742-9 7/1. 051-516-0089

李相國=(자택)부산 해운대구 중2동 5701 프린스빌라 301호. 051-742-9333

朴裁昊=(자택)부산 금정구 남산동 268-1 4/1. 051-518-9055

徐鳳源=장수아구집.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80-26 17/1. 051-818-



6947  
**朴鉉濟**=섬진섬유산업(주) 회장.032-819-5500. (자택이사)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20동 604호. 032-528-8374  
**卞完洙**=중소기업진흥공단 자문위원. 02-546-6517. (자택이사)서울 서초구 잠원동 62-4 신반포 26차아파트 374동 1001호. 02-593-1638  
**李憲珍**=환경정보 논설위원겸 경인지역 본부장. 032-552-0042. (자택)032-541-9456. 016-312-7456  
**鄭寅浩**=(주)효성. 02-714-7766. (자택)02-593-5958  
**정진동**=(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267 매화마을 대창빌라 804동 102호. 032-709-2346. 011-337-0750

제 11 회

**金台源**=전 한국전지 사장. 4월 3일 모친 별세

제 12 회

**權延相**=변호사. 4월 8일 서울에서 수술하고 회복이 좋습니다. 02-3482-3431. 051-741-6226  
**權翼**=북구 구청장. 5월 9일 장남 결혼  
**金光一**=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부산사무소 5월 1일 개소. 051-463-8844  
**金起秀**=변호사. 3월 28일 부친 별세  
**金秀元**=럭키약국 대표. 5월 9일 장녀 결혼  
**金容鎬**=신곡중학교 교감. 12회 경문회 회장. 3월 25일 승진한 동기생 축하 유희회를 호춘한식에서 가짐  
**金鍾珠**=명지유우소 대표. 5월 1일 이전 개업. 051-271-2828  
**金準鐵**=협성검정 대표이사. 중, 서, 영도지역회장. 4월 29일 금화초밥에서 지역유희회 개최  
**朴保國**=은성사 대표이사. 보름동안 미국업체 초청으로 현지 시찰하고 4월 20일 귀국  
**梁在根**=서울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4월 11일 모친 별세  
**李鍾文**=세종공업(주) 전무이사로 승진  
**鄭棟植**=동의대학교 영문학교수. (자택전화번호변경)0523-362-4145  
**崔旻均**=국제미디어(주) 부사장으로 취임. 051-245-9558

제 13 회

**金弘哲**=4월 1일 동흥판매사 법인 개업. 051-463-6420  
**孫辰翼**=4월 15일 서울 아미호텔에서 차남 결혼  
**鄭永鎬**=4월 15일 서울 해중홀에서 장녀 결혼  
**曹東久**=4월 24일 서울 남산타워호텔에서 장녀 결혼

제 14 회

**朴春濟**=성신상회 대표. 051-646-7030. 3월 4일 모친 별세. (자택) 051-256-9356  
**梁晶宇**=일신병원 부원장. 051-646-2625. 3월 6일 국제신문사 4층에서 딸 결혼. (자택)051-743-3755  
**李吉尾**=(주)태성산업 대표이사. 0525-332-1271. 4월 8일 부친 별세. (자택)051-416-2081  
**金充**=4월 10일 조선비치호텔에서 딸 결혼. (자택)051-244-2327  
**張三植**=SARACO 이사 삼양무선공업(주). 051-413-5000. 4월 24일 온천성당에서 장녀 결혼.(자택) 051-866-6456  
**黃浚夏**=백합화원 대표. 051-256-9431. 4월 25일 국제빌딩 웨딩홀

에서 딸 결혼  
**李載仁**=북부산경찰서 보안1계장. 5월 1일 대도예식장에서 장녀 결혼  
**尹英鉉**=(주)영 포리케미칼 대표이사. 051-862-6312. (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벽산2차아파트 208동 1502호. 051-701-5767  
**辛容眞**=화인보세장치장, 화인보세장치고 대표. 0523-374-3946 (부산사무소)부산시 중구 중앙동 87-7 무역회관빌딩 14층. 051-464-3915~6.  
**金在道**=학교법인 동아학숙 총무과장. 051-255-9021. (자택)051-754-1574

제 15 회

**崔旭**=미 뉴저지주 주립대 교환교수로 지난 3월 도미. (숙소)201-585-0705. (연구소)201-692-6498  
**李在元**=약학박사. 경성대학교 출강  
**金判烈**=4월 10일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에서 장녀 결혼  
**朴鍾吾**=(주)서영항공여행사 사장. 4월 7일부터 타워갤러리에서 부인 백원선 화백의 작품전시회 성황리에 개최. 02-2274-0009  
**金勳**=금천산업(주) 전무. 051-514-8406. 016-548-5121  
**孫富弘**=부산의과대학 동창회 부회장 2년간 위촉. 5월 15일 오후 2시 코모도호텔에서 장남 결혼  
**權永吉**=국민승리 21 대표. 금년 하반기에 진보정당 창당준비로 동분서주. (사무실 이전)서울 여의도. 02-369-8822  
**具一鉉**=롯데건설(주) 상근기술교문. 5월 8일 부산 상록회관에서 차녀 현정양 결혼. 02-786-1320  
**朴喜珠**=주폐루대사. 51-1-341-0435 (서울)0344-902-7301

제 16 회

**姜東源**=경남고등학교. 051-248-2181. (자택)051-416-3724  
**金良和**=부산 MEC 라디오 광고제작국장. 051-760-1130. 4월 24일 남천성당에서 장녀 명조양 결혼  
**金判圭**=육군중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0336-634-2200. 4월 20일 경기도 이천 소재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부대 창설 및 초대 사령관 취임식 개최  
**朴文奎**=부산 사하구 괴정1동 자택에서 돼지생고기 전문 골목집 개업. 051-205-9760  
**徐正植**=(주)建夏 감사. 02-704-7201~2 중국 동포 또는 해외인력 필요하면 연락요망  
**宋子文**=(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아아파트 106동 501호. 051-701-2775  
**玉始榮**=(자택이사)인천 부평구 부개1동 285-24호. 032-519-9373  
**玉潤錫**=(자택이사)부산 사하구 구평 17 구평자유아파트 101동 1705호. 051-263-2101  
**李茂松**=브라질에서 일시 귀국. 오는 6월말 다시 출국예정. 부산동기회원들에게 식사 제공  
**李良根**=밀양 새 경남의원. 0527-354-2084  
**李採彦**=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051-890-6744. 5월 1일 광복교회에서 장녀 현경양 결혼  
**鄭祐光**=하동 우체국장. 0595-883-0004  
**崔安弘**=최소아과의원 개업. 부산 북구 화명동. 051-334-1817  
**河洪根**=남부복음병원 재개원. 부산 사하구 장림동. 051-261-6822  
**許鐘旭**=(주)희훈 회장. 02-338-2700

# 어디서 무엇을

제 17 회

**李相玉**=4월 26일 69사단 연병장에서 사단장 취임식 개최  
**安成容**=군수기자사령관. 5월 8일 육군회관에서 딸 결혼  
**崔聖湖**=최성호피부비뇨기과의원장. 051-256-2564. 5월 30일 오전 11시 코모도호텔에서 장녀 결혼  
**李鍾德**=국제신문사 사장. 사세 확장을 위해 동분서주  
**金永典**=해운대소아과의원장. 051-742-2233. 해운대 거주 20여명의 동기 모임인 장산회 결성하여 초대 회장에 취임

제 19 회

**李龍欽**=4월 10일롯데호텔에서 모친 고회연  
**朴聖柱**=서영통상(주) 4월 16일 개업. 부산 중구 동광동 2가 4 동양빌딩 902호. 051-244-2101  
**崔永植**=4월 18일 남태평양호텔에서 차남 결혼  
**申允喆**=(자택)부산 연제구 연산9동 선경아파트 106동 701호. 051-759-5433  
**申泰祐**=부산 사하구 괴정2동 3/1. 051-208-1332  
**梁在模**=경남 양산군 동면 사송리 582. 0523-81-9619  
**楊正洙**=부산 연제구 연산3동 1875-71 25/1. 051-852-5675  
**吳旻鍾**=부산경찰청 수사과장. 051-851-5300  
**吳在浩**=대일보세창고 대표. 부산 영도구 봉래동 1가 194. 051-415-3131  
**오치봉**=대봉산업 대표.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25-4. 051-517-6757  
**柳元尙**=청룡건설 대표이사. 부산 동래구 거제1동 71-12. 051-504-4012~3  
**陸振源**=(자택)부산 수영구 수영동 541 현대아파트 104동 103호. 051-753-0782  
**尹敏根**=경남화원 대표. 부산 서구 토성동 1가 25 토성상가 내. 051-246-0804  
**尹永奎**=(주)대경실업. 051-558-4456. (자택)부산 동래구 수안동 해바라기아파트 가동 407호  
**李江鎔**=이강용내과의원장. 부산 동래구 명륜동 6-11. 051-553-6890  
**李基柱**=부산은행 전산부장. 051-865-3741. (자택)부산 연제구 거제3동 현대아파트 105동 1201호  
**李明煥**=손해보험협회. 051-522-1034. (자택)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현대아파트 503동 207호  
**李炳九**=이병구내과의원장. 051-623-7092. 부산 남구 용호3동 394-18 14/4  
**李炳浩**=(주)LEE HO 대표이사. 부산 사하구 장림2동 1033 장림유수지. 051-265-9777  
**李富成**=성내과의원장. 부산 사하구 신평동 146-27. 051-207-6530  
**李聖達**=대성컨테이너 대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07-3. 051-783-2200  
**李承洪**=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 30. 051-510-2312

제 20 회

**朱昌雄**=오복식품(주) 전무이사. (자택이사)부산 사하구 다대동 현대아파트 109동 1405호

**金哲弘**=연합건축 대표. 4월 24일 아들 수민군 결혼. 02-368-5630  
**陳益成**=동양 야금 대표. 4월 24일 코모도호텔에서 딸 결혼. 051-205-2660  
**黃明煥**=5월 8일 부산진구청 예식장에서 아들 재용군 결혼. 051-703-3073

제 22 회

**丁鍾國**=(주)목평인력개발 대표. 부산 연제구 연산4동 643-28. 051-852-5571~2  
**張聖福**=(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07 대원아파트 102동 1802호. 051-703-1326

제 23 회

**金眞煥**=SK 국제전화카드총판 엔. 제이 상사 대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트윈프라자 1403호. 02-3452-3407  
**玄仁鎬**=돼지수육(개업). 부산 중앙동. 051-462-4026  
**高漢秀**=웅진개발(서울 사무실 오픈) 서울 강남구 삼성동 35-8 태성빌딩 402호. 02-585-6131

제 28 회

**閔珠植**=(주)하나 부산지사 이사. 051-816-3367. (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효성코오롱아파트 107동 1702호. 051-741-5234  
**金佳用**=(주)두레에어매탈 회계팀 이사. 02-767-4751. (자택)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벽산아파트 107동 1302호. 02-395-3940  
**鄭元永**=국제신문 서울지사 차장. 부친 별세  
**韓泰榮**=(주)대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김리단 차장. 032-437-0489. 019-277-4302. (자택)인천 부평구 부평1동 70-5 동아아파트 27동 906호. 032-521-4302  
**金容燮**=(주)한국알루미늄 울산공장. 모친 별세  
**李昌舜**=충남 아산시 선문대 공대 재료공학부 조교수. 0418-530-2346. (자택)0417-571-9665  
**李信昊**=청주시 충북대 농대 농공학과 교수. 0431-261-2574. (자택) 0431-252-6971  
**鄭允賢**=(주)창대종합물류 대표. 051-466-1900. (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LG아파트 104동 102호. 051-701-9418  
**宋治永**=양수리에서 카페 베르디 개업. 0338-771-4511  
**李雨史**=한국토지신탁 원주지사장. 0371-766-5301  
**金昌洙**=부산대학교 상대 국제대학원 부원장. 051-510-2579  
**李萬洙**=PSB 부장. (자택이사)부산 연제구 연산9동 연산LG아파트 105동 802호. 051-755-4392

**金昌俊**=김창준치과의원 원장. 051-469-5221

제 29 회

**金昌鎭**=3월 7일 별세  
**盧炳煥**=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방사선. 042-868-2869. 3월 9일 부친 별세  
**秋淵哲**=(주)한주. 052-279-8951. 3월 22일 모친 별세  
**宋哲浩**=성장기업 차장. 051-260-3411. 4월 11일 부친 별세  
**朴國仁**=연세세브란스 소아과. 02-3497-3350. 4월 17일 모친 별세  
**金龍植**=국제치과의원 개원. 부산 중구 보수동 1가. 051-257-2827. 256-2827  
**尹文洙**=양산 수영장 개장. 0523-375-5533  
**金富謙**=(주)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상무이사. 051-464-0423~4  
**朴熙律**=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306-8. 051-242-3902. 019-513-3902  
**崔文星**=메리놀병원 신경외과 과장. (자택이사)부산 수영구 남천1동 뉴비치아파트 503동 1401호. 051-621-3932  
**趙仁浩**=(주)SK 영동본부장. 0391-652-2311. 011-372-5183

제 31 회

**崔鳳根**=부동산서버(주) 부산지점장 취임. 051-802-8555  
**梁熙澤**=(주)한통정보시스템 부산지사 부장. 051-863-2001  
**朴璟洙**=(주)천치상사 대표이사. 0523-372-3611  
**崔東植**=(주)동방인쇄 대표이사. 051-636-9477  
**韓文盛**=(주)대한검정 울산사무소 소장. 052-261-4668  
**朴東範**=동업한의원 원장. 051-757-7170  
**鄭在永**=인켈오디오랜드. 르네시메 5066. 051-319-5866  
**李相日**=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과. 051-888-6772. (자택)부산 금정구 회동동 산 42-1 사택. 051-528-4398  
**崔鍾宰**=한국도로공사 소장. 0523-388-4203. (자택)부산 기장군 기장을 한신아파트 108동 108호. 051-722-3729. 017-560-3729  
**崔寅鶴**=중구청 기획감사실 감사. 051-469-0281  
**鄭仁和**=해동중 교사. (자택)부산 수영구 광안1동 광원아파트 104동 1907호. 051-758-0154  
**元鍾仁**=쑥쑥킵 해운대지사. 051-703-6878. (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상록아파트 106동 1002호  
**孫永太**=(주)한국카텔코 4월 24일 기공식. 051-265-7715  
**姜信孝**=한성학원장 시설증축. 051-754-2515.

## 알림판

제12회동기회(회장 이용언)=5월 11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동광동 '일번지'일식집에서 제1차 이사회.  
 제15회동기회(회장 정기문)=5월 20일 오후 7시 부산역 앞 아리랑관광호텔 2층에서 "경험을 나눕시다. 정보를 나눕시다." 동기회 모임-조규중동기(치과의원장)의 '우리 나이의 치아관리'강연.  
 제17회동기회(회장 박가식)=5월 23일 부곡 덕암산에서 부부동반 산행.  
 제18회동기회(회장 강동섭)=5월 9일 금정산에서 부부동반 산행.  
 제26회동기회(회장 장경재)=5월 30일 백양농원에서 가족동반 야유회.  
 제28회동기회(회장 서영대)=5월 9일 오전 9시30분 대청공원~꽃마을야영장에서 가족동반 등반대회.  
 제29회동기회(회장 이석조)=5월 22~23일 경부합동 체육대회 겸 야유회. 22일-중앙대 안성캠퍼스에서 야구 등산 골프대회. 23일-용인에버랜드에서 가족동반 야유회.  
 제30회동기회(회장 최거훈)=5월 15~16일 충북 영동군 마니산관광농원에서 전체 동기생 모여 야유회 겸 등반대회.



### 제29회 가슴 뭉클한 두 美談

# 친구장례 1백20명 “울음행렬” 유족에 생활안정금 5백만원도

제29회동기회 동문들이 동기회 발전에 헌신하다 티계한 한 친구의 장례식에 모여 오열을 삼켰고,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금으로 거금을 마련해 줘 보는 사람마다 가슴이 뭉클하게 했다.

그리고 몇몇 동문들은 공납금을 내지 못해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던 재학생들을 위해 역시 공납금을 대납해 주 선후배간의 생애는 사랑을 확인케 했다.

## “은혜 꼭 갚겠습니다”

3월 7일 오전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이석조회장을 비롯한 동문 1백20여명은 친구들의 길을 영원히 떠나고 김창진동문(법무사)의 영구차를 두고 오열하고 있었다.

고인의 친구들을 비롯해 가족과 일가친척, 친지 등 조문객들의 장례행렬이 1백m쯤 됐다. 고인은 평소 동기회의 온갖 일에 남달라 앞장서 왔다. 어려운 친구들도 남몰래 수많이 도왔다. 그래서 동문들이 이날 이처럼 많이 모인 것일까.

### 행복만들기

## ‘공납금 미납’ 졸업이나 진급 못한 재학생들에 1백만원 쾌척

특히 이회장 등 동문들은 유족(부인·딸)을 위해 생활안정금을 모금, 5백만원을 마련했고 이를 4월 27일 미망인에게 전달하고 곳곳이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미망인은 딸과 함께 울음을 터뜨린 채 감사의 뜻을 몇번이고 전했다. 동문들의 뜻을 대표로 전한 이회장은 “힘난한 세상을 굳건한 투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위로했다.

## 5명이 모교에 대납

한편 장취열 최원락 윤종경 이정윤 김재현동문 등 5명은 공납금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졸업 또는 진급을 할 수 없게 된 재학생들이 더러 있다는 말을 듣고 1백만원을 마련, 2월 28일 전달했다.

이들의 ‘후배사랑’ 소식은 동문은 물론 재학생들에게 널리 퍼져 신선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선배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와 자신들의 미납 공납금을 대신 납부해 줘 졸업을 하게 되었거나 진학을 하게 된 것을 안 후배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모교과 동창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입을 모았다.

김교장은 선배들의 ‘후배사랑’의 가특한 정성을 잊지말 것을 해당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 근시수술... 환자·의사 신뢰성 중요

시력이 나쁜 사람은 옛날부터 전쟁이나 사냥 및 단체행동에서 보조를 맞추지 못하여 항상 외로운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광학이 발전하여 안경이 나오고 난 뒤에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을 터이고 소외감도 덜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능력은 있으나 시력이 나빠서 할 수 없거나 불편한 직업들이 많다.

조종사 스튜디오 스펀생도 운동선수 등등... 그러나 아직도 젊은 사람에게 많은 근시의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으며 유전설과 환경에 의한 영향력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30~40%정도이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비율도 3명 중 1명꼴로 시력에 장애를 느끼고 있다. 안경이나 렌즈의 장기착용으로 인한 불편과 합병증으로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근시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시행중인 근시수술로는 PRK방법의 엑시머 레이저, 라식, 수정체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 각막 내 링 삽입술, 안구 내 콘택트렌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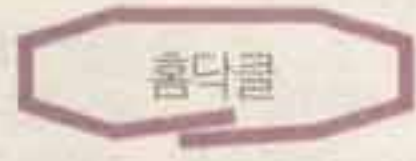
최근 근시교정술은 과학과 신의 조화라 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수술들은 문

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엑시머 레이저는 경도 및 중등도의 근시에 뛰어난 예측도가 있으나 고도 근시에는 약간씩 근시로 이행하는 성질이 있다. 라식의 경우에도 PRK수술법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했으나 여전히 안전성, 난시, 예측도 감소 등의 여운을 남기고 있다.

수정체 제거는 뛰어난 예측도는 있으나 거리 조절력의 감소가 있다. 각막 내 링 삽입술은 링을 제거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링의 두께로 인한 근시교정력의 한계가 있다. 안구 내 콘택트렌즈는 뛰어난 예측력은 있으나 향후 백내장이나 안내염의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수술시 주의를 해야 한다.

수술방법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난다. 현재로는 엑시머 레이저에 의한 PRK수술법과 라식이 뛰어난 예측도와 비교적 낮은 합병증으로 가장 보편적인 수술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의학에 의한 수술방법의 선택은 환자와 의사의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의사의 경험이 중요하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차후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병 준 제32회 삼성안과의원장



## 제19회 동기회 임원 명단

<b>회 장</b> 김봉호 316-5111	이용만 204-7316 이용흥 462-4711 이창홍 244-3000 이춘만 246-1864 정기영 245-3577 정확영 265-5717 진영준 207-5223 허홍욱 510-1600	이성달 783-2200 황태원 742-0890	<b>감 사</b> 김경재 243-4105 문관진 293-0318	<b>이 사</b> 강국상 202-4096 강도상 327-2875 강영수 243-7573 강종인 623-2124 김부환 554-1011 김순호 205-5852	김영득 203-1881 김재상 502-5671 김철호 890-6277 노덕현 623-1662 노태규 256-4007 박성주 244-2101 박영재 741-4405 박 일 박재현 245-1906 박종화 464-1288 배영구 868-6668 백홍기 516-6544 성한진 627-5775 신상건 631-4431	신윤철 759-5433 오경중 851-5300 오재호 415-3131 유원상 504-4012 윤영규 558-4456 이감용 555-2901 이기주 865-3741 이명환 522-1034 이병구 623-7092 이부성 207-6530 이용조 255-7731 이장희 518-7945 이재길 864-8611 이정길 242-5433	이창현 625-2746 임영수 261-3731 임태석 463-2881 전시우 462-5541 최광우 811-1209 최영식 208-0033 한원태 865-5471 한중수 625-8655	<b>총 무</b> 박성규 246-0397 윤민근 246-0804
----------------------------	--	------------------------------	--	--	---	--	--	--

## 제28회 동기회 임원명단

<b>고 문</b> 김용원 아세아태평양 법률사무소 246-7891 최강호 진영수산(주) 대표 254-8691 김만중 삼진공업(주) 대표 313-4551	김관세 김관세치과의원 554-4858 김대경 동보수증건설 대표 816-3367 김명영 김명영치과의원 333-1784 김명준 춘해병원 내과과장 645-8971 김병철 (주)부산도시가스 공사부 부장 623-9886	노영현 동성부역 대표 610-1233 박병근 부산일보 정치부장 461-4106 문형재 대한투자신학 남전동지점장 628-7707	이만재 이만재내과의원 622-2233 이봉근 주한 캐나다영사관 상무관 240-1813	여인남 757-0889 최용석 (주)그린푸드시스템 영업이사 441-7350
<b>회 장</b> 서영대 한마음신경정신과의원 504-3131	김봉관 배원빌딩 대표 626-2816 김부문 부산대학교 수학과 교수 510-2685 김상정 김상정내과의원 327-7575 김영철 김영철내과의원 416-2002 김용진 춘해병원 정형외과 과장 645-8971 김용희 삼성라이온스 수석코치 865-1705 김준배 김준배치과의원 333-2800 김준연 구서외과의원 513-1199 김정준 김창준치과의원 469-5521 김태완 (주)명동스텐레스 대표 293-0840 김현진 남산약국 대표 646-4858 노승만 노승만산부인과 의원 262-6767	민교식 장산해물전문점 대표 742-8484 박영규 코마엔지니어링 대표 465-4477 배철영 동보약품(주) 245-8895 백선용 부산의과대학 해부학교수 240-7723 백진수 (주)지산개발 대표 504-6746 송재성 상원C&G 대표 011-558-8580 안 풍 인웨이당 대표 633-9545 양종영 덕현한의원 896-3314 엄재홍 엄재홍회계사무소 대표 803-4291 윤명일 L&A 대표 316-8497 이대식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10-2550	이원용 춘해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461-3271 이원철 법무법인 「국제」 대표 463-7755 이인재 이인재산부인과의원 405-5111-2 이재민 남도의원 361-1841 이진우 부경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620-6653	김 사 김원홍 사진작가 253-7005
<b>수석부회장</b> 우건식 경남RCM 대표 753-1744	김정관 김창준치과의원 469-5521	이민수 부산방송 경영, 광고총괄부장 850-9460	이정희 신아용상 대표 202-3379 장재용 송남의원 대표 241-6865 정근재 코오롱벨라 창선특약점 대표 246-0056	<b>총무/총괄</b> 소유남 (주)하이립 부사장 465-2233 <b>총무/재무</b> 백형덕 동양화재 한솔종합대리점 011-853-9995
<b>부회장</b> 강용수 중앙치과의원 245-9156 조광재 대선약국 국장 206-2205	김현진 남산약국 대표 646-4858	정운현 창대종합물류 대표 466-1900 조현태 대한투자신학 해운대지점장 702-7100	이명환 522-1034 이병구 623-7092 이부성 207-6530 이용조 255-7731 이장희 518-7945 이재길 864-8611 이정길 242-5433	<b>총무/행사</b> 김치은 삼일전기공업(주) 이사 319-1960 <b>총무/기획</b> 정인식 정인갤러리 대표(문화교육활동가) 동기회수집·신문제작 담당 017-565-8202 FAX. 051-247-9663
<b>이 사</b> 구영소 백양주유소 대표 893-4242 권수원 가가컴퓨터시스템 대표 303-8672	김태완 (주)명동스텐레스 대표 293-0840			